

한숨 돌린 금융지주, 코로나19에도 3분기 실적 ‘好好’

코로나대출 급증으로 이자이익 개선 동학개미 열풍에 증권계열사 선방 KB금융지주, 리딩뱅크 경쟁 앞설 듯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에도 3분기 실적이 선방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순이자마진(NIM)은 악화됐지만 코로나19로 기업과 가계 모두 대출을 늘린 덕분이다. 여기에 ‘동학개미’ 열풍으로 증권계열사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리딩뱅크’ 경쟁에서는 KB금융지주가 신한금융지주를 앞설 것으로 보인다. 각 부문별 영업이익이 고르게 개선된 데다 푸르덴셜생명 인수에 따른 일회성 이익도 3분기에 반영된다.

6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신한·K

〈금융지주 3분기 순이익 추정치〉

구분	3분기 (전년동기대비)
KB금융	9235억원(-1.79%)
신한금융	8931억원(-9.02%)
하나금융	5951억원(-28.88%)
우리금융	4862억원(+0.04%)

/에프앤가이드

B·하나·우리금융지주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2조8979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7% 감소한 수준이다.

올해 3분기 금융지주들의 어닝시즌(실적발표기간)을 앞두고는 분위기가 좋다. 총당금으로 불확실성이 컸던 2분기와 달리 이번에는 실적추정치가 연일

상향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회성 이익 규모에 따라 작년 3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수도 있다.

하나금융투자 최정욱 연구원은 “3분기 NIM의 하락폭은 크지 않은 반면 은행 대출성장률은 2.0% 수준의 고성장이 기대돼 대출성장률 증가 효과가 NIM 하락 효과를 상쇄하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며 “비이자이익의 경우도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외화환산익 등의 요인들과 증권계열사들의 큰폭의 실적 개선세로 인해 나름 선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번에는 대손충당금 부담도 크지 않다. 은행들은 2분기 약 1조원에 육박하는 코로나19 대비 추가 충당금을 적립한 바 있다.

최 연구원은 “3분기에도 코로나19 대비 추가 충당금 적립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중소기업 신용위험 재평가

에 따른 소폭의 추가 적립 외에는 2분기처럼 대규모로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출만기연장·이자납부유예 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내년 3월경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당금 추가 적립은 4분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리딩뱅크 자리는 KB금융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의 3분기 순이익 추정치는 9235억원으로 신한금융 8931억원을 앞섰다. 분기 순이익 9000억원대를 지킨 것은 물론 증권사별로는 1조1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는 곳도 있다.

BNK투자증권 김인 연구원은 “이자이익은 전분기 대비 증가세로 돌아서고, 대손충당금 전입규모는 감소할 것”이라며 “특히 푸르덴셜생명 인수에 따른 영가매수차익 2333억원까지 반영하면 KB금융의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

기 대비 20.4% 늘어난 1조1324억원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푸르덴셜생명 인수에 따른 효과는 앞으로도 긍정적이다. 이번엔 일회성 이익이지만 향후 지속될 그룹 순이익 증가효과는 분기당 300~400억원 안팎이다.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의 3분기 순이익 추정치는 각각 5951억원, 4862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나금융의 3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본점 매각에 따른 일회성 이익 4500억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상 실적이 양호하고, 원화강세로 인해 외화환산이익이 700억원 가량 발생했다.

우리금융은 2분기는 사모펀드와 코로나19 관련 비용이 다소 확대되면서 부진했지만 3분기 바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SGI서울보증, 미래세대 돕는 ‘착한 행보’

저소득층 어린이 장학 지원 난치병 환자 위한 의료 후원 희망의 집짓기 봉사활동

SGI서울보증보험이 미래세대의 성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나눔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장학지원과 함께 난치병 환자·심장병 어린이를 위해 의료지원도 활발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 행렬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미래세대를 위해 의료, 교육, 주거 부문으로 나눔활동을 진행 중이다.

의료지원으로 서울대 어린이병원 및 지역 국립대병원과 연계해 난치병을 앓고 있는 빈곤계층의 어린 환자들에게 매년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난 5월에는 소아암 및 희귀난치성 환자를 위해 서울아산병원에 1억원을 후원했다.

‘꿈나무·희망파트너 장학사업’을 통해 저소득·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장학프로그램을



서울보증보험 종로구 본사 전경 /서울보증보험

운용한다. 대학생 멘토링 교육지원, 문화체험 활동 등 다양한 어린이 정서지원 사업을 함께 펼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국내외 희망의 집짓기 봉사활동을 통해 주거지원도 진행한다. 최근에는 서울시와 함께하는 아동 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지원사업에 후원금 1억 6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2월 취약 계층 아동이 사용할

마스크 5만장 등으로 구성된 세이프박스(1억원 상당)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후원했다. 대구적십자사에 위생물품을 위한 구호기금 1억원을 후원한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코로나 피해가정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해 사회연대은행에 기부금(토닥토닥 지원금) 2억원을 전달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올해 초 임직원들의 자발적 나눔문화 조성의 노력을 인정받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착한 일터’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임직원의 목표 봉사시간인 1만1000시간에 대한 매칭 기부금 1억 1000만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했다.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6일 “서울보증보험은 미래세대를 위한 나눔의 기업문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를 하루 빨리 극복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청소년 맞춤형 혜택 모은 체크카드 잇따라 출시

패스트푸드, 문구점 등서 혜택 제공 성인되도 사용가능... 락인 효과 기대

금융권에서 청소년을 겨냥한 체크카드를 선보이면서 후불교통카드 기능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매장을 중심으로 할인 혜택을 채워넣고 있다. 성인이 되어서도 별도 전환 없이 사용이 가능해 ‘락인(Lock In) 효과’를 기대한다는 전략이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최근 청소년 전용 카드 ‘쏘영(So Young)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교통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함께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문구점, 스터디카페 등에 할인 혜택을 집중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청소년 고객들이 혜택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월 실적이 5만원으로 비교적 낮다”며 “청소년들의 생활 패턴과 소비 스타일에 최적화해 구성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DGB대구은행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DGB 독디 후불교통’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만 12~17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월 5만원까지 선충전 없이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편의점, 올리브영, 다이소, 이디야 등 청소년들이 주로 방문하는 매장에서 최대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청소년을 타겟으로 한 체크카드 출시 배경은 지난 4월부터 청소년들도 후불교통카드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청소년 체크카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후불 교통카드의 한도가 월 5만원에 불과하지만, 별도 충전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영석 기자 ysl@

IBK기업銀, 2021년 혁신창업기업 모집

창업 7년 미만 기업 대상

IBK기업은행이 창업육성 프로그램 ‘IBK창공(創工)’의 2021년 상반기 혁신창업기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으로 1차 서면평가, 2차 대면평가를 통해 마포·구로·부산 3개 센터에서 각 20여 개씩, 총 60여개 기업을 최종 선발한다. 모집 기간은 11월 5일까지며, 12월 중순 최종 선발기업을 발표한다.

육성기간은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다. 기업은행은 선발기업에게 ▲공유오피스 형태의 사무 공간 ▲1대1 전담 멘토링 ▲투자유치를 위한 데모데이 ▲국

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우수기업으로 선발된 기업에게는 은행의 직접 투자 또는 IBK금융그룹의 초기투자 펀드를 활용한 투자 등 금융지원도 제공한다.

IBK창공은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스케일업(scale-up)을 지원하는 기업은행형 창업육성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7년 12월 문을 연 마포 센터를 시작으로 구로·부산 총 3개의 센터를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총 243개의 혁신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571억원의 투·융자와 2877여건의 컨설팅, 멘토링 등을 지원했다. /나유리 기자

신한카드

창립 13주년 기념 자원봉사

신한카드는 창립 13주년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다음달까지 두 달간 ‘신한카드 아름다운 자원봉사대축제(자원봉사대축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자원봉사대축제는 신한금융그룹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 하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봉사활동 프로그램이다. 신한카드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 고객봉사단이 함께 사회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이영석 기자

아시안뱅크지 ‘韓 최우수 자금관리銀’ 선정

우리은행 최우수 송금은행 2개 부문

우리은행은 글로벌 금융전문지 아시아안뱅크지가 주관한 트랜잭션 파이낸스 어워즈 2020에서 ‘한국 최우수 자금관리은행(Best Cash Management Bank in South Korea)’과 ‘한국 최우수 송금은행(Best Payments Bank in South Korea)’ 2개 부문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우리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 연속 아시아안뱅크지 트랜잭션 어워즈에서 수상하게 됐다. 특히 자금관리 부문은 2013년부터 8년 연속 한국 최우수 자금관리 은행으로 선정됐다.

아시아안뱅크지는 우리은행이 ▲450여



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효율적 금융서비스 제공 ▲우리글로벌퀵송금 등 비대면 해외송금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고객 맞춤형 자금관리 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강화된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통제 등으로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아시아안뱅크지는 1996년 싱가포르에 설립된 글로벌금융지로 매년 트랜잭션, 디지털 분야 등에서 최우수 은행을 선정한다. /이영석 기자